

만화출판의 성쇠

글 |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만화단행본이 1억 부 이상 팔리는 전성시대의 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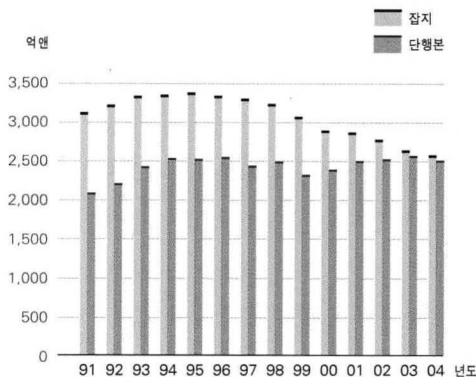
일본 만화는 강력하다. 출판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판매 부수의 37.2퍼센트, 매출액으로는 22.5퍼센트를 차지한다. 1억 부 이상 판매된 단행본 시리즈도 여럿이다. 이를테면 1995년에 완결된 《드래곤 볼》(총 42권)이 현재까지 1억 2,000만 부 판매됐고, 1996년에 완결된 《슬램 덩크》(총 31권)는 작년 8월 10일 도하 일간지에 '1억 부 돌파'를 자축하는 저자의 감사광고까지 실렸다. 현재 간행중인 《원 피스》(총 35권)는 작년 11월 말에 최고 풍속으로 1억 1,000만 부를 달성했다. 앞의 두 작품은 10년 전에 650만 부까지 발행되던 <주간 소년 점프> 연재물이고, 뒤의 작품 역시 동일 잡지의 추락을 300만 부에서 멈추게 한 연재물이다.

이 외에도 다른 만화잡지에 연재된 《도라에몽》을 비롯한 4작품이 1억 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자랑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만화책만 8종이다. 이처럼 잡지 → 단행본 → 애니메이션 → 캐릭터, 게임, 테마파크 등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본 만화산업의 견고한 가치사슬에는 항상 만화주간지가 성장엔진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잡지시장의 침체가 거듭되면서 만화단행본 1억 부 판매 신화가 언제 다시 재현될지 짐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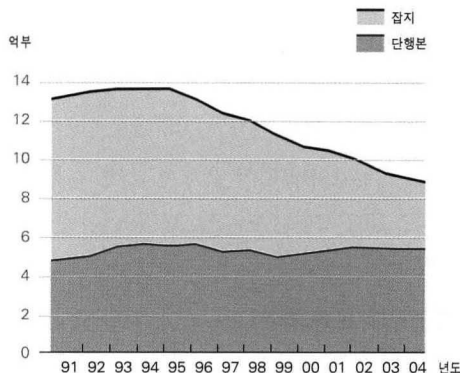
2004년 일본 출판시장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7퍼센트 증가한 약 22조 4,280억 원(도서 9조 4,290억 원, 잡지 12조 9,980억 원)으로 8년 만에 극적인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내역을 보면 밀리언셀러가 7종이나 속출하며 건투한 도서 분야가 4.1퍼센트 증가한 반면, 잡지 분야는 1.7퍼센트(특히 주간지는 4.9퍼센트) 감소하여 부진 양상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잡지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점유율이 큰 만화에 있다. 출판과학연구소가 집계한 만화출판 시장규모는 약 5조 470억 원으로 단행본이 2조 4,980억 원, 잡지가 2조 5,490억 원이다(관련 통계는 <출판월보> 2005.2 인용). 판매부수는 13억 8,421만 부(단행본 5억 2,321만 부, 잡지 8억 6,100만 부)로 10년 전인 1994년의 약 19억 부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만화잡지는 9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시장 포화상

〈표 1〉 만화출판 시장규모 - 추정 판매금액 추이



〈표 2〉 만화출판 시장규모 - 추정 판매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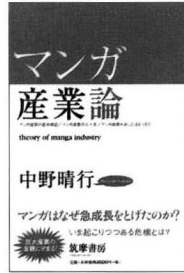
• 시장규모 및 판매량 추이에서 만화잡지(초록부분)의 급락을 보여주는 그래프 (출판과학연구소 자료)

태에서 구조적 쇠퇴기로 이행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잡지에 비해 건장하던 만화단행본은 엽가판 경장본이나 '완전판'이 호응을 받으며 수요 확대에 기여했으나, 텔레비전의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화 작품들의 판매가 맥을 못추며 기세가 꺾였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 절대적으로 TV에 의존하던 만화시장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작이 TV셀러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시장이 침식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신간의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신간 발행종수는 10년 전(5,794종)



• 300만 부 발행되는 일본 만화잡지의 대명사
<주간 소년 점프>



• 일본 만화 발전사와 위기구조를 분석하며 처방전을 제시한 출판계의 필독서가 된 <만화산업론>

에 비해 2배 늘어난 1만 431종에 이른다. 만화잡지는 작년에 33종이 창간되면서 역대 최고인 297종이나 발행되고 있다.

위기의식 속 대응책 분주

작년에 발행돼 화제를 모은 나카노 하루유키(中野晴行)의 《만화산업론》에 따르면, 만화는 시장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일본 출판산업의 토대를 이뤄 왔으나 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기 시작하는 2007년부터 급격한 위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자는 일본출판학회 강연회(2004.11.10)에서도 이런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만화산업의 위기는 출판을 필두로 캐릭터, 게임 등 관련 문화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주문했다(《일본출판학회 회보》 114, 115 합병호, 2005.2).

독서실태 조사에서도 만화잡지의 침체가 확인된다. 전국학교도서관협회의 협력을 얻어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해 발표한 <제50회 전국학교독서조사>(2004.10.27) 결과를 보면, 만화를 주축으로 한 잡지 월평균 독서량은 초등학교생이 전년도의 4.8권에서 4.2권으로, 중학생은 4.3권에서 4.0권으로, 고교생이 3.7권에서 3.3권으로 각각 줄었다. 이렇듯 자라나는 세대의 수요 감소 못지않게 만화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형 중고서점 및 만화카페의 난립이다. 체인형 대여점에 대한 대여권 적용 효과도 미지수이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엮이본 경장판이 잡지 판매에 순기능을 하는 것만도 아니다. 큰 시간차 없이 보다 저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독자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단행본으로 분류되는 엮이본 경장판은 일반 만화단행본 평균가격 480엔보다 100엔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3년 전 평균가 299엔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된 가격이다. 이 분야는 작년에 약 2,540억 원 6,500만 부의 시장규모로 1,509종의 신간을 발행했다. 1999년 7월에 첫 등장한 이래 발행종수나 시장규모 등이 한결같이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화출판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은 베스트셀러 소설의 만화화이다. 예를 들어 300만

부를 돌파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만화로 출판되어 100만 부를 넘겼다. 《Deep Love》, 《뱀에게 피어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명작만화를 단행본이나 잡지로 재발행하는 복간사업도 활발하다. 테츠카 오사무나 시대 활극을 특화시킨 잡지를 비롯해 다양한 매뉴가 돋보인다. 또한 시장규모가 일본의 1/30에 불과한 미국에서 영어판 월간 <소년 점프>가 일본 애니메이션 붐에 힘입어 평균 40만 부 발행될 만큼 호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발굴·양성만이 만화잡지, 나아가 일본 만화 관련산업의 생명력을 담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만화산업론》 저자의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재능 있는 작가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수렵형' 방식에서 이제는 작가를 키우는 '농경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책 《만화 원고료는 왜 싼가?》에서 제기하듯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원고료로 출판계의 박리다매형 작가 푸대접이 작품 수준을 저하시켰다는 문제제기도 돌출한다.

한국은 일본만화의 최대 수입국이다. 작년에 발행된 7,867종 가운데 일본만화는 약 40퍼센트(3,081종)이며 시장 점유율은 2/3 안팎에 육박한다. 약진하는 한국만화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대여권 도입 등 저작권 보호, 서점 판매 및 외수시장 개척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영토주권 못지않게 만화주권 확립에 관심이 모아지는 요점이다. [4]

●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